

2020년 3/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0. 6

창원상공회의소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 6. 1 ~ 19(휴일제외 15일 간)
- 분석대상 : 119개 응답업체 (표본 제조업체 239개)

(단위 : 매, %)

	규모별		수출, 내수 비중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수출기업	내수기업		
매수	21	98	24	95		
비중	17.8	82.2	20.3	79.7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금속	기타운송장비	
매수	22	25	38	18	16	
비중	18.6	21.2	31.4	15.3	13.6	
응답자 직급별						
	임원이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매수	36	39	10	15	11	8
비중	30.5	33.1	8.5	12.7	8.5	6.8

3.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4.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II

요약

- ◎ 3분기 창원 제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전망 및 실적 BSI지수가 지수산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최저 지수를 나타낸 이후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임.
특히 1분기 말 조사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분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전망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 상의 실적지수는 그 수준을 한참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상보다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 정부가 더 확대해야 할 지원정책으로 금융·세제 지원과 고용유지 안정 지원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제21대 국회에는 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조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문했음.
- 2020년 3분기 창원기업 전망BSI '39.5', 1분기 실적BSI '23.5'
 - 지난 2분기 역대 최저치인 '50.9'를 기록한 이후, 3분기 더 낮은 수준
 - 항목별 3분기 전망BSI, 매출액(28.6), 영업이익(29.4), 설비투자(50.4), 자금조달(42.9) 등 기준치 크게 밑돌아
 - 업종별 3분기 전망BSI 전기·전자(50.0), 자동차 및 부품(48.0), 기계(35.1), 철강·금속(22.2), 기타운송장비(27.8) 등 전업종 3분기에 어두운 전망
 - 업종별 2분기 실적BSI 자동차 및 부품(8.0), 전기·전자(18.2) 기록
-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보다 2분기 경영상황 악화 심화, '75.7%'
 -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내수, 수출) 악화' 73.9%, '자금조달 악화' 57.1%, '부품·자재 조달 악화' 42.5%, '사업장·공장 가동 악화' 65.5%
- 피해 최소화 집중하느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응여력 없다, '50.4%'
 - 마련 또는 준비 중인 대응책별 응답률은 'R&D 강화'(43.7%),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37.0%), '디지털·비대면 비즈니스 확대'(31.9%), '업종전환'(17.6%), '해외사업장 유턴 검토'(3.4%) 순
- 정부엔 '금융·세제', '고용유지' 지원을,
국회엔 '추경 등 코로나19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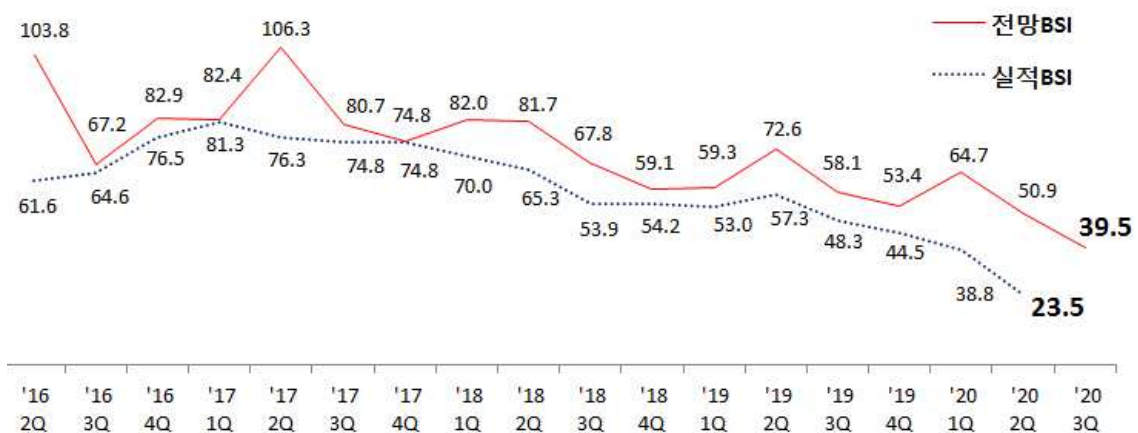
Ⅲ

2020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창원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및 실적 BSI

- 2020년 3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39.5'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7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한 결과임. 지난 2분기 전망BSI가 '50.9'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인 후, 3분기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임.
- 2020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적BSI 또한 지난 1분기 '38.8'를 기록한데 이어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3.5'로 조사되었음.
-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에 실적 감소와 이에 따른 불안심리가 현실화한데 따른 것임.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국내 산업 및 기업정책의 기조변화 등으로 인력투입과 대규모 장치산업을 바탕으로한 생산성에 이점을 가진 지역 제조업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의 환경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급감과 생산차질에 이은 투자위축으로 피로도가 매우 큰 것으로 풀이됨.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2. 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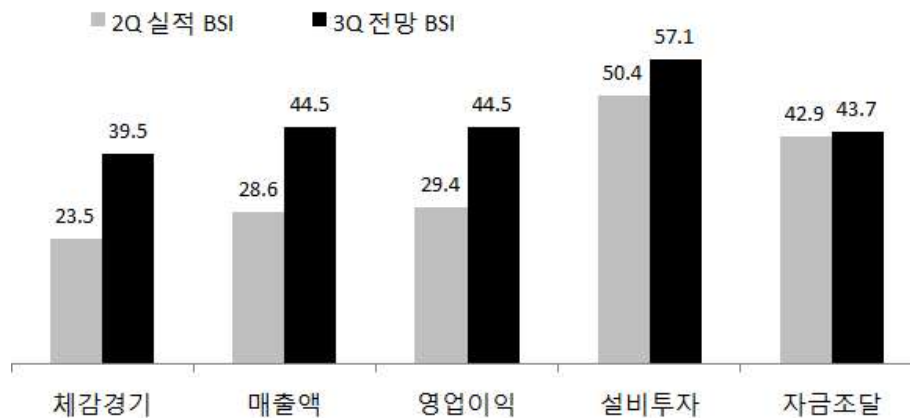
- 조사항목별 실적BSI도 매출액 '28.6', 영업이익 '29.4', 설비투자 '50.4', 자금조달 '42.9'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어, 2분기 수주 감소와 생산차질 등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임.
실제로 2분기에 속하는 4월과 5월 창원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27.8%, 31.5% 감소했으며, 수입 또한 각각 4.4%, 17.4% 감소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수출도 부정적 전망이 가능함.
- 지난 2분기 전망조사에서 이들 항목 모두 낮은 지수를 보이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지만, 실제 실적지수는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을 보였음.

2분기 전망 대비, 실적지수 비교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조달
2분기 전망 (1분기말 조사)	50.9	73.3	69.8	80.2	62.9
2분기 실적 (2분기말 조사)	23.5	28.6	29.4	50.4	42.9

- 3분기 전망BSI도 전 부문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음. 매출액 '39.5', 영업이익 '44.5', 설비투자 '44.5', 자금조달 '57.1'로 전 부문 기준치를 하회했음.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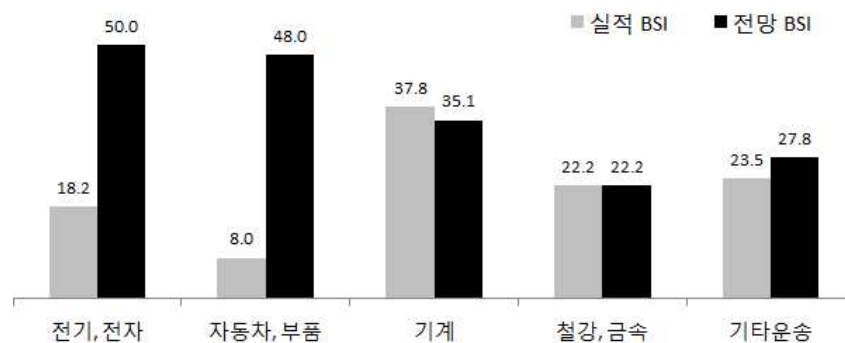
3. 업종 및 기업유형별 전망

- 업종별 실적BSI는 전기전자 '18.2', 자동차 및 부품 '8.0', 기계 '37.8', 철강 및 금속 '22.2', 기타운송장비 '23.5' 등 전 업종의 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음. 특히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의 실적BSI가 '8.0'으로 매우 낮은 지수로 조사되었음.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수직계열화 정도가 높은 부품 협력업체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5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50.8%, 61.1% 급감한 모습임. 특히 국내완성차업체가 현지 생산거점을 둔 자동차부품 주력 수출시장인 멕시코(-91.4%), 미국(-74.0%), 베트남(-66.4%), 우즈베키스탄(-44.2%), 중국(-31.6%) 등의 수출실적이 큰 감소를 보임.

- 전망BSI는 전기전자 '50.0', 자동차 및 부품 '48.0', 기계 '35.1', 철강 및 금속 '22.2', 운송장비 '61.5', 기타 '63.6' 등 전 업종 기준치를 하회했음. 특히 기계업종의 경우 전망지수가 실적지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분기보다 3분기 경기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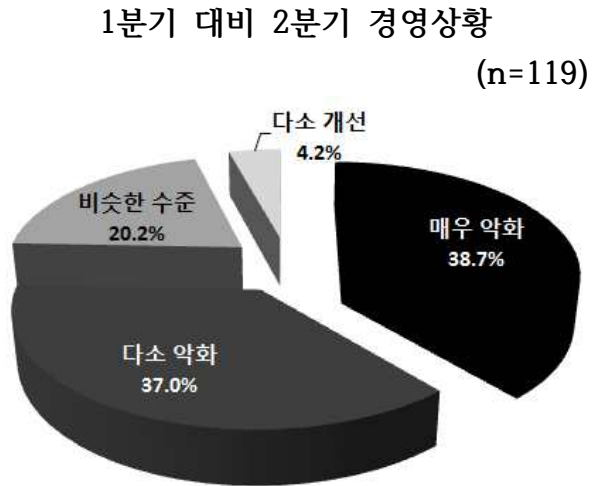
- 규모별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하 대기업)과 300인 미만(중소기업)의 실적지수는 각각 '28.6'과 '22.4'로, 전망지수는 '47.6'와 '37.8'로 조사되었음.
- 기업유형별로 실적 및 전망 BSI도 모든 기업군의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망지수의 경우 수출기업(58.3) 보다는 내수기업(34.7)이 3분기 경기를 더욱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음.

IV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1.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경영상황

- 창원지역 제조업체(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1분기 대비 2분기 경영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38.7%가 ‘매우 악화’를, 37.0%는 ‘다소 악화’를 꼽았고, 20.2%는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음. ‘다소 개선’으로 답한 응답률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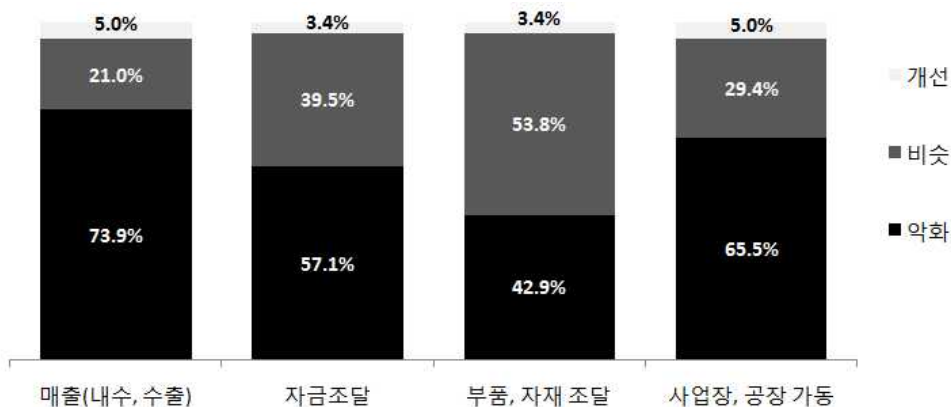


에 그쳐, 전체 75.7%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답했음.

- 1분기와 비교해 2분기 부문별 여건변화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매출(내수 및 수출)’부문에서 73.9%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사업장, 공장 가동’부문은 65.5%, ‘자금조달’부문은 57.1%, ‘부품, 자재 조달’ 42.9%가 1분기 대비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했음.

1분기 대비 2분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문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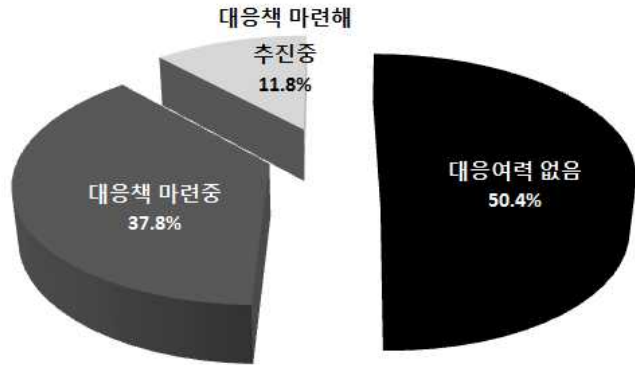
(n=119)



2. 대응책 여부

- 코로나19 이후 시대(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0.4%가 ‘피해최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응여력 없음’으로 답했고, 37.8%는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더불어 11.8%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 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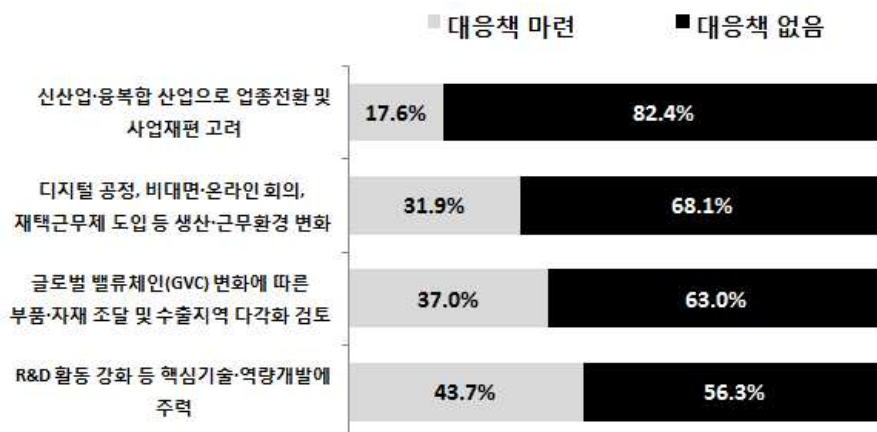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 여부 (n=119)



-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또는 마련 중인 것으로 ‘R&D 활동 강화 등 핵심 기술·역량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응답률이 43.7%로 가장 높았음. 또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부품·자재 조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 검토’ 37.0%, ‘디지털 공정, 비대면·온라인 회의, 재택근무제 도입 등 생산·근무환경 변화’ 31.9%, ‘신산업·융복합 산업으로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 17.6%의 응답률을 보였음.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부문별 대응책 마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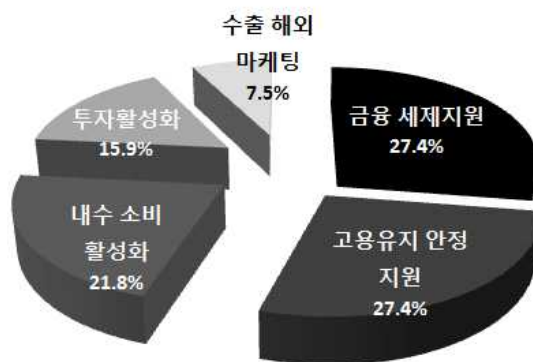
(n=119)



3. 정부와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으로 ‘고용유지 안정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을 각각 27.4%로 꼽아 가장 많았고, ‘내수·소비 활성화’ 21.8%, ‘투자활성화’ 15.9%, ‘수출 해외 마케팅’ 7.5% 순으로 답했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 (n=119)



-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더불어, 국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조치’를 31.9%가 꼽아 가장 많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 27.7%, ‘투자·소비 활성화 법안 마련’ 23.5%, ‘기업 부담입법 지양’ 13.4%, ‘서비스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1.7% 순으로 답했음.

경제회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n=119)

